

# 2024 스리랑카 대선 결과와 전망

윤지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044-414-1327)



## 차 례

1. 2024년 스리랑카 대선 결과
2. 주요 경제 현안 및 신정부 정책 방향
3. 전망

## 주요 내용

- ▶ 2022년 국가 부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대통령 선거 결과, 아누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좌파 연합 야당 국가인민동맹(NPP) 대표가 스리랑카의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24년 9월 21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스리랑카 총유권자의 79.5%가 참여한 1차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 부재로 2차 집계를 진행했으며, 서민 출신인 디사나야케 후보가 55.9%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됨.
  - 국가 부도를 초래한 지도층의 재정관리 부실과 부정부패, 2023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한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사나야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부패 척결과 빈민 친화적 정책이 청년층과 농민·빈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음.
- ▶ 신정부는 내부적으로 경제회복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스리랑카는 지난 2022년 5월 디폴트를 선언하며 독립 이래 최악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라자팍사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연이은 대내외 충격으로 촉발되었으며, 수출정책을 등한시한 비교역 부문 위주의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2023년 3월 승인 받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단기적인 경제 불안정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생활비, 세금, 실업률 등으로 민생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9월 23일 출범한 디사나야케 정부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통해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 IMF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의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친중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도와 중국 간의 균형 외교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11월 14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IMF 측에 이행 조건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오랜 기간 친중, 반인 태도를 고수해온 신정부가 중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음.
  - 디사나야케 정부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주요국 간 균형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2024년 스리랑카 대선 결과

- 2022년 국가 부도 이후 첫 대통령 선거 결과, 아누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좌파 연합 정당 국가인민동맹(NPP: National People's Power) 대표가 스리랑카의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24년 9월 21일 실시된 이번 대선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 라닐 위크레마싱헤(Ranil Wickremesinghe), 제1야당 국민의힘연합(SJB)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 총재, 좌파 연합 야당 국가인민동맹(NPP) 아누라 디사나야케 총재 간의 3자 경합 구도로 치러짐.
    -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장남, 전직 육군 사령관을 포함해 역대 최다 수준인 3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유권자 1,7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짐.
  - 총유권자의 79.5%가 참여한 1차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 부재로 2차 집계를 진행했으며, 디사나야케 후보가 55.9%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됨.
    - 스리랑카는 유권자가 최대 3인의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순위기표제(ranked voting)를 실시하는데, 1순위 선호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집계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집계에 들어감.<sup>1)</sup>
    - 1차 집계 결과 디사나야케 후보가 42.31%, 프레마다사 후보가 32.76%, 위크레마싱헤 후보가 17.27%를 득표했으며, 이어진 2차 집계에서 디사나야케 후보가 최다 득표에 성공함.
  - 이는 제3당 후보가 선출된 첫 사례로, 정치 명문가 출신 후보자 사이에서 서민 출신이자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3.16%<sup>2)</sup>에 그쳤던 디사나야케 후보가 당선된 데는 8대 대통령 라자팍사 정부가 야기한 경제위기가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디사나야케 후보는 2000년 국회에 입성해 2004년 농업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인민해방전선(JVP: Janatha Vimukthi Peramuna) 및 좌파 연합 정당 국가인민동맹(NPP, 2019년 창당) 대표직을 수행해 왔음.
- 
- 이번 대선 결과에는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장기간 시행된 포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대외채무로 국가 부도를 초래한 지도층의 재정관리 부실,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는 2022년 라자팍사 8대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음.
    - 위크레마싱헤 9대 대통령은 라자팍사 정권에서 여러 차례 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대통령 선출 당시 집권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시민들의 반감을 삼.
  - 이에 더해 2023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위크레마싱헤 정부의 세금 인상, 보조금 축소 등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이 생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빈민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디사나야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부패 척결과 빈민 친화적 정책이 청년층과 농민·빈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음.

1) 이번 대선은 동 선거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래 2차 집계를 시행한 첫 사례임.

2) 2019년 대선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가 52.25%, 사지트 프레마다사가 41.99%를 득표함.

- **신정부는 내부적으로 경제회복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2년 디폴트 전후로 산적한 스리랑카의 경제 현안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제시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신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2. 주요 경제 현안 및 신정부 정책 방향

### 가. 스리랑카 경제 현안

- **스리랑카는 지난 2022년 5월 디폴트를 선언하며 독립 이래 최악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4월 12일,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그로부터 한 달 만인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진입함.
- 이에 장기 집권한 라자팍사 가문의 정계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아라갈라야 운동, Aragalaya)<sup>3)</sup>가 확산함에 따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총리를 비롯해 라자팍사 가문 출신의 장관들이 줄지어 사퇴했으며,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2022년 7월 국외로 도피한 후 전격 사임하기에 이룸.
  - 라자팍사 가문은 2009년 타밀 분리주의 반군과의 내전을 종식해 불교계 싱할라족(Sinhalese, 스리랑카 인구의 75% 차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스리랑카를 통치해 왔음.<sup>4)</sup>
- 의회의 간접 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한 위크레마싱헤 정부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도입에 본격 착수하여 스리랑카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함.<sup>5)</sup>
  - IMF로부터 2023년 3월 총 22억 8,600만 루피(약 29억 달러, 48개월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 받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억 6,200만 루피(약 10억 달러)를 수령함.
- **스리랑카의 경제위기는 라자팍사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와 2019년 발생한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발발 등 연이은 대내외 충격으로 촉발됨.<sup>6)</sup>**
-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과도한 화폐 발행, 화학비료 수입 금지조치와 같은 부적절한 정책 시행은 스리랑카의 재정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함.
  - 라자팍사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VAT)를 15%에서 8%로 인하하고 국가재건세(NBT: Nation Building Tax)를 비롯한 7개의 세금을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연간 14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함.<sup>7)</sup>

3) 스리랑카 싱할라어로 '투쟁'을 의미함.

4) 2005년과 2010년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직을 연임하면서 그 형제와 자식들이 행정부와 내각 주요 요직을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동생 고타바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독재에 가까운 통치를 지속함.

5)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사임함에 따라 스리랑카 헌법에 의거해 의회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할 새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선출된 대통령은 스리랑카 헌법 제40조에 따라 공식이 된 대통령의 임기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6)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 외(2022),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 2021년 4월에는 외화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하는 유기농법 정책을 도입하면서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그 여파로 되려 식료품 수입이 증가함.<sup>8)</sup>
- 이에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과도하게 늘렸으며,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투입함.<sup>9)</sup>
- 이에 더해 2019년 부활절 테러<sup>10)</sup>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의 주 수입원인 관광 수입과 해외노동자 송금액 유입에 직격탄을 맞았으며,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됨.
- 스리랑카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관광 수입이 2021년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43억 8천만 달러) 대비 5.9% 수준에 불과함.<sup>11)</sup>
-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20만 명을 상회했던 해외 이주 근로자 수가 2020년 5만 4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해외송금 유입액은 2019년의 67억 달러에서 2021년 55억 달러, 2022년 38억 달러까지 축소됨.<sup>12)</sup>
- 스리랑카 루피화 약세 기조가 더해지면서 스리랑카는 식품, 연료, 의약품 등 필수품의 극심한 부족과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경험함.
- 달러당 180스리랑카 루피 선에서 유지되던 환율이 2022년 상반기 360루피까지 급등한 가운데, 당해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이 73.7%,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85.8%까지 치솟음.<sup>13)</sup>

■ 다만 스리랑카 경제위기는 수출정책을 등한시한 비교역(non-tradable) 부문 위주의 경제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음.

- 26년간 이어진 내전 종식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각종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재정 지출과 대외채무에 의존해 건설, 인프라 등 비교역 부문을 확장한 반면,<sup>14)</sup> 농업이나 제조업 등 부문에서의 수출 촉진정책은 등한시해 왔음.
-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마탈라 라자팍사(Mattala Rajapaksa) 국제공항 등 각종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대외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수출, FDI, 송금액 등 외화 유입의 저조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재정 불안정이 심화됨.

7) AP news(2019. 11. 28.), "Sri Lanka's new government announces tax cuts," <https://apnews.com/general-news-b6b96849ebe74c8dbeac461ff8418c28>(검색일: 2024. 9. 21.); BBC(2023. 3. 29.), "Sri Lanka: Why is the country in an economic crisis?" <https://www.bbc.com/news/world-61028138>(검색일: 2024. 9. 21.).

8) 동 정책 도입의 명목상 이유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였으며, 농민들의 반발로 해당 금지조치는 당해 11월 해제됨.

9) International Crisis Group(2024. 9. 17.), "Sri Lanka's Bailout Blues: Elections in the Aftermath of Economic Collapse," <https://www.crisisgroup.org/asia/south-asia/sri-lanka/341-sri-lankas-bailout-blues-elections-aftermath-economic-collapse> (검색일: 2024. 10. 10.).

10) 2019년 4월 21일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교회와 호텔 8곳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 폭탄테러로 300여 명이 사망함.

11) 방문객 수는 2020년 5만 8천여 명, 2021년 19만 4천여 명으로 2018년의 233만 4천여 명에서 대폭 감소함[스리랑카 중앙은행 Monthly Economic Indicators, DB(검색일: 2024. 9. 21.)].

12) Central Bank of Sri Lanka(2022), "Quarterly Bulletin of Worker's Remittances and Labour Migration - Quarter 4 of 2022," [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statistics/workers\\_remittances\\_and\\_labour\\_migration\\_bulletin\\_2022\\_q4\\_e.pdf](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statistics/workers_remittances_and_labour_migration_bulletin_2022_q4_e.pdf)(검색일: 2024. 10. 4.).

13) 스리랑카 통계청(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DB(검색일: 2024. 10. 6.).

14) 스리랑카 경제는 건설, 인프라, 전력 및 에너지, 운송, 통신, 금융, 공공행정, 방산, 교육, 보건 등 비교역 생산 부문에 의존적임(Daily FT(2024. 9. 10.), "Economic crisis in Sri Lanka: Policy challenges for the new Government - Part 1," <https://www.ft.lk/opinion/Economic-crisis-in-Sri-Lanka-Policy-challenges-for-the-new-Government-Part-1/14-766539#>(검색일: 2024. 9. 20.)].

- 이에 쌍둥이 적자(무역 및 재정 적자)가 20여 년간 지속된 가운데, 부채 상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대외채 무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초래됨.
  - o 재정적자 규모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22년 사이 세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2021년 기준 GDP의 11.6% 기록),<sup>15)</sup> 무역적자 규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o 2015년과 2019년 사이 신규 차입한 부채의 89.8%가 2014년 말 기준 누적된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sup>16)</sup> 2017년부터 99년간 중국상선항만유한회사(CM Port)에 Hambantota 항구의 지분 70%를 임대하여 확보한 11억 2천만 달러 또한 외환보유고 강화와 단기 외채 상환에 사용됨.<sup>17)</sup>

그림 1. 무역 및 재정 적자

(단위: 백만 스리랑카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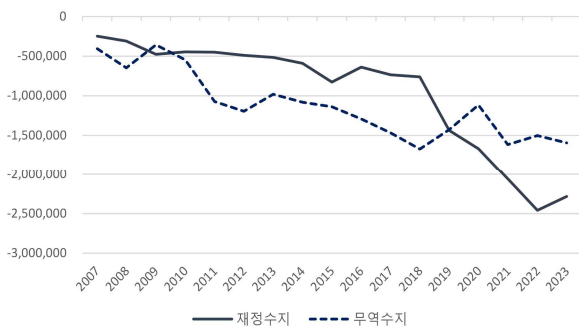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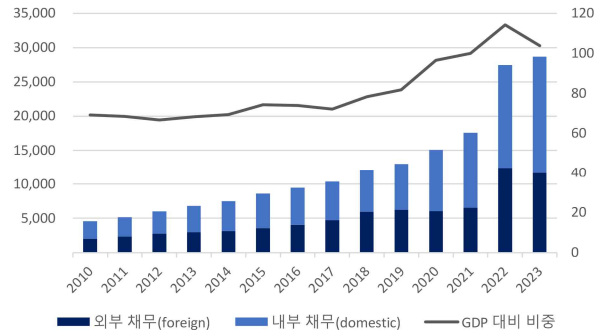


그림 2. 스리랑카 정부 부채

(단위: 십억 스리랑카 루피(좌), %(우))



자료: CEIC 및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4.10. 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4. 10. 4.).

■ 2023년 3월 승인 받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단기적인 경제 불안정은 다소 해소됨.

- IMF는 2023년 3월 20일 스리랑카에 대해 29억 달러 규모의 확장재정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sup>18)</sup>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세제 개혁, △대외채무 재조정, △물가 안정 및 외환보유고 재건, △거버넌스 취약성 개선 등을 제시함.<sup>19)</sup>
- 스리랑카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전기요금 등을 연이어 인상해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GDP의 9.2%에 달하는 외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 재조정을 본격화함.
  - o 부가가치세는 8%에서 18%,<sup>20)</sup> 법인세는 24%에서 30%로 인상했으며, 원천징수세가 의무화되고 개인

15)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4. 10. 4.).

16) Foreign Policy(2022. 4. 28.), "How the Rajapaksa Destroyed Sri Lanka's Economy," <https://foreignpolicy.com/2022/04/28/sri-lanka-rajapaksa-protests-economy-corruption/>(검색일: 2024. 9. 21.).

17) The Diplomat(2020. 1. 1.), "The Hambantota Port Deal: Myths and Realities," <https://thediplomat.com/2020/01/the-hambantota-port-deal-myths-and-realities/>(검색일: 2024. 9. 21.).

18) 확장재정지원(EFF)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의 상환 기간을 허용해 정부가 구조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The Diplomat(2023. 3. 25.), "What's in the IMF's New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for Sri Lanka?," <https://thediplomat.com/2023/03/whats-in-the-imfs-new-extended-fund-facility-arrangement-for-sri-lanka/>(검색일: 2024. 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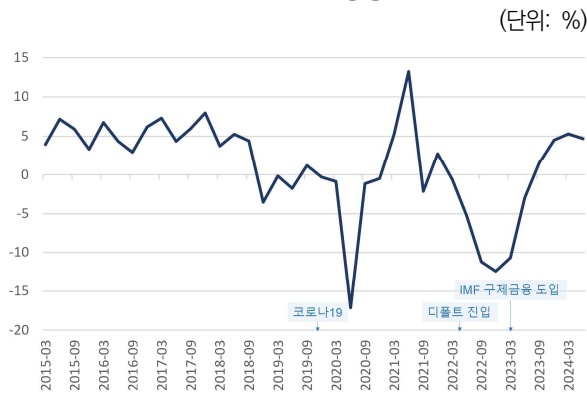
19) IMF Country Report No. 23/116(2023. 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03/20/Sri-Lanka-Request-for-an-Extended-Arrangement-Under-the-Extended-Fund-Facility-Press-531191>(검색일: 2024. 10. 4.).

20) 2022년 5월 8%에서 12%, 당해 9월 15%로 연이어 인상한 뒤 2024년 1월부터 18%로 추가 인상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Public Finance.lk(2023. 11. 1.), "VAT to reach 20 year high from January," <https://publicfinance.lk/en/topics/vat-to-reach-20-year-high-from-january-1698838459>(검색일: 2024. 10. 4.).

납세자에 대한 면제 혜택도 축소됨.<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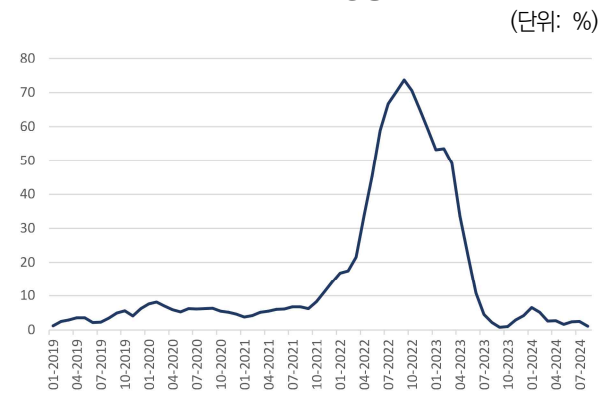
- 2024년 6월 말, 인도, 일본, 프랑스를 포함한 공식 채권자 위원회(OCC: Official Creditor Committee)<sup>22)</sup>와 58억 달러 규모의 대외채무 재조정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자 채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는 수출입은행의 42억 달러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합의함.<sup>23)24)</sup>
  - 2024년 7월 초에는 125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부채(ISB: International Sovereign Bonds)에 대한 부채 재조정에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sup>25)</sup>
- GDP 성장률은 지난 2023년 3/4분기에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되어 2024년 1/4분기 5.3%, 2/4분기 4.7%를 기록함.

그림 3. GDP 성장률



자료: CEIC(검색일: 2024. 10. 4.).

그림 4. 물가상승률



자료: CEIC(검색일: 2024. 10. 4.).

- 2022년 하반기 73.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은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기준금리 인상(5.0% → 15.5%)으로 2023년 하반기 한 자릿수로 안정화되기 시작해 2024년 8월 기준 1.1%를 기록함.
- 2021년 1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고는 2024년 8월 기준 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5개월 치 수입액 수준으로 회복함.
  -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한 해외노동자 송금액은 2024년 8월 누적 기준 전년

21) Aljazeera(2022. 5. 31.), "Sri Lanka hikes tax rates to boost government revenues,"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2/5/31/sri-lanka-hikes-tax-rates-to-boost-government-revenues>(검색일: 2024. 10. 4.).

22) 스리랑카의 공식 채권자 위원회는 2022년 5월 9일 17개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도와 일본, 파리클럽(Paris Club, 채무불이행 방지를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국에 대한 채무 재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채권국들의 비공식 그룹) 의장인 프랑스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음[Paris Club, "Agreement on a debt restructuring between the Official Creditor Committee and Sri Lanka," <https://clubdeparis.org/en/communications/press-release/agreement-on-a-debt-restructuring-between-the-official-creditor>(검색일: 2024. 10. 5.)].

23) Country Economic Forecast - Sri Lanka(2024. 9. 30.), "Oxford Economics"; AP news(2024. 6. 27.), "Sri Lanka reaches deal on debt restructuring with bilateral creditors including China and France," <https://apnews.com/article/sri-lanka-economic-crisis-india-japan-china-503d8871e4b14c8bda9822b171f73b8d>; The Hindu(2024. 6. 26.), "Sri Lanka seals debt deal with Official Creditor Committee after financial crisis,"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sri-lanka-finalises-debt-restructuring-agreement-after-financial-crisis/article68335968.ec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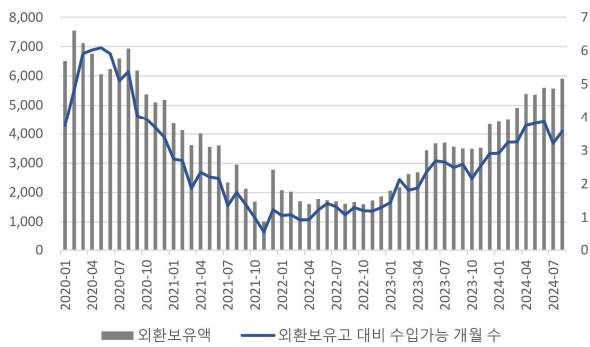
24) 2022년 기준 연간 60억 달러(GDP의 9.6%)에 달했던 채무 상환에 대해 기한을 재조정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GDP의 4.5% 미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AP news(2024. 6. 27.)].

25) The Diplomat(2024. 7. 9.), "Sri Lanka's Debt Restructuring Deal: Economic Relief or Creditor Windfall?" <https://thediplomat.com/2024/07/sri-lankas-debt-restructuring-deal-economic-relief-or-creditor-windfall/>(검색일: 2024. 10. 6.).

동기대비 11% 증가했으며, 1/10 수준으로 감소했던 관광객 수가 반등하면서 관광 수입 또한 20억 달러를 상회하며 2024년에는 8월 누적 기준 이미 21억 달러를 초과함.

그림 5. 외환보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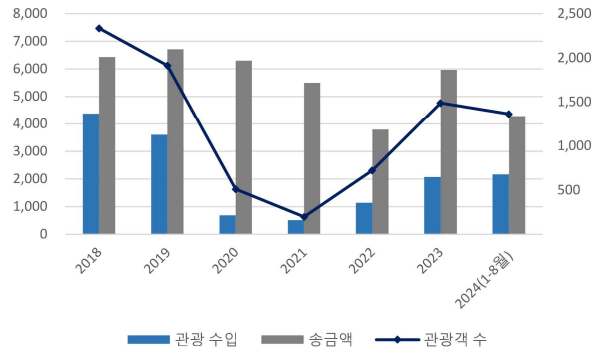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좌), 개월(우))



자료: CEIC (검색일: 2024.10.4.)

그림 6. 송금액 및 관광업

(단위: 백만 달러(좌), 천 명(우))



자료: Monthly Economic Indicators - August 2024,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4.10.4.)

■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생활비, 세금, 실업률 등으로 민생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IMF 권고에 따라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6.4%까지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와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인상(15% → 18%, 97개의 기존 면제 품목 포함)하고 법인세 면제 범위를 축소(연간 매출액 8천만 루피 → 6천만 루피)했으며,<sup>26)</sup> 최근에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서비스 수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폐지, △술·담배·게임 분야 법인세 인상, △주택 임대소득세 도입 등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결정함.<sup>27)</sup>
  - 이에 더해 2022년 8월 전기요금을 75%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또 한 차례 66% 인상하면서 2023년 1~10월 사이에만 50만 명 이상이 전기료 체납으로 전력공급을 차단당함.<sup>28)</sup>
- 청년 실업률이 2023년 기준 17%까지 상승하고 노동참여율이 역대 최저치인 48.6%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sup>29)</sup>
  -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면서 2022년에만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고용 인구는 800만여 명에 불과함.<sup>30)31)</sup>

26) IPS (2024. 1. 10.), "New Year, New VAT: Can Sri Lanka's Poor Cope with the Increase?" <https://www.ips.lk/talkingeconomics/2024/01/10/new-year-new-vat-can-sri-lankas-poor-cope-with-the-increase/>(검색일: 2024. 10. 6.).

27) KPMG, "The new tax measures agreed during the 02nd review by the IM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lk/pdf/kpmg-tax-news/2024/june-2024/Tax\\_Alert\\_June\\_2024\\_IMF\\_Reforms\\_Press\\_Release.pdf](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lk/pdf/kpmg-tax-news/2024/june-2024/Tax_Alert_June_2024_IMF_Reforms_Press_Release.pdf)(검색일: 2024. 10. 6.).

28) Nikkei Asia(2023. 11. 23.), "Bankrupt Sri Lanka's poor face life in darkness as price of IMF bailout," <https://asia.nikkei.com/Spotlight/Sri-Lanka-crisis/Bankrupt-Sri-Lanka-s-poor-face-life-in-darkness-as-price-of-IMF-bailout>(검색일: 2024. 10. 5.).

29) Daily Mirror(2024. 4. 10.), "Sri Lanka'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hits new low in 2023," <https://www.dailymirror.lk/breaking-news/Sri-Lankas-labour-force-participation-rate-hits-new-low-in-2023/108-280514>(검색일: 2024. 10. 6.).

30) CADTM (2023. 12. 19.), "Budget 2024: 'Deep Marketisation' in Sri Lanka," <https://www.cadtm.org/Budget-2024-Deep-Marketisation-in-Sri-Lanka>(검색일: 2024. 10. 5.); Daily Mirror(2024. 4. 10.)(검색일: 2024. 10. 6.).

31) 스리랑카 인구는 2022년 기준 2,200만 명(세계은행)임.



- 여권 발급 신청 건수와 스리랑카 외국인 고용국(SLBFE: 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등록자 수가 급증하는 등 일자리 부족으로 상당수가 해외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됨.<sup>32)</sup>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에만 빈곤층이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됨에 따라 스리랑카 빈곤율이 2019년 11.3%에서 2023년 25.9%(2017년 PPP 기준 일일 3.65달러 빈곤선 이하)로 상승함.<sup>33)</sup>

## 나.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 디사나야케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공약집 「A Thriving Nation - A Beautiful Life」를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democratic economy)에 기반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교육·보건·주택공급, △사회보장제도와 노동환경 개선, △생산 기반 경제 구축 및 인프라 확대, △거버넌스 개선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함(부표 1 참고).<sup>34)</sup>
-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적 민주주의,<sup>35)</sup> △국민 참여, △식량안보, △공정한 분배,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국제 협력 및 연대, △진보적이고 공정한 과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 '2030년 GDP 1,200억 달러의 경제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함.<sup>36)</sup>

■ 신정부는 △안정적인 세제 체계 마련, △송금액, FDI, 수출, 관광 수입을 통한 외화 확보,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음.

- [재정정책] 세무 행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 제도를 마련(개인 소득세 연간 세금 면세 기준 상향 조정, 기업 감가상각 공제 확대, 필수 식료품 VAT 면세 등)하며, 세금 징수 간소화 및 단일 창구 서비스 구축 등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통화정책] 중소기업, 기업인, 소작농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금리를 안정화할 방침임.
- [대외정책] △해외 이주민 대상 저축 및 투자 대책 마련, △SDGs 관련 개발 프로젝트 지원 목적의 개발 채권 발행, △국가 전략산업 FDI 유치, △기존 무역협정 검토 및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 다각화, △관광 및 IT 산업 강화 등을 통해 외화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IMF 프로그램 이행]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협상을 이행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무 행정 및 정부지출 관리 제고,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 △대외채무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법적 조치 강구, △국가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공공 재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32)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2018년 33만 건에서 2022년 91만 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SLBFE 등록자 수도 같은 기간 21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증가함. ILO Statistical Brief(Dec 2023), "Sri Lanka's Labour Market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2022-23," <https://www.ilo.org/publications/sri-lankas-labour-market-during-economic-crisis-2022-2023>(검색일: 2024. 10. 8.).

33) World Bank, "Sri Lanka Development Update (April 2024),"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a498539d-ae15-4911-8895-fff713aa063a/content>(검색일: 2024. 10. 6.).

34) Jathika Jana Balawegaya, "A Thriving Nation - A Beautiful Life," <https://www.npp.lk/up/policies/en/npppolicystatement.pdf>, <https://www.npp.lk/en/policies/npptabloid>; Fact Cresendo(2024. 9. 18.), "Summary of Election Manifestos of the Key Candidates" <https://srilanka.factcrescendo.com/english/presidential-election-2024/summary-of-election-manifestos-of-the-key-candidates-618903>(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9. 20.) 참고

35)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활동에서 민주적인 요구나 정책, 제도를 실현해 나가려는 사상임.

36) 2022년 기준 스리랑카 GDP는 748억 달러임(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

■ 더불어 스리랑카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농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군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해운 중심의 수출 다각화 촉진정책을 강조함.

-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 △사업 등록, 인증, 토지 사용, 인프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단일 창구 설치, △국가 전략 부문에 대한 PPP 투자 홍보 등을 제시함.
- 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상품·서비스 수출 다각화 촉진 및 관련 인프라 개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해상서비스(안보, 연료, 식량) 허브로의 역할 제고, △항구 시설 개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을 강조함.
- 산업별로는 농축산·어업, ICT, 관광, 해운, 광물자원, 발전,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목표와 세부 계획을 마련함.
- 한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 IT, 공공기관, 관광업 분야에 총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함.

표 1. 스리랑카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분야	세부 분야	내용
거시경제 안정화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 행정 효율성 제고</li> <li>▷ 국민 디지털 식별 코드(UDI) 도입으로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 개인 소득세 연간 세금 면세 기준 상향(120만 → 240만 루피) 조정</li> <li>▷ 기업 감가상각 공제 기준을 지출의 120%로 확대</li> <li>▷ 필수 식료품 VAT 면세</li> <li>▷ VAT 징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지털 송장 도입</li> <li>▷ 과세 평가, 신고, 납부, 환급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li> <li>▷ 세관 단일 창구 서비스 구축</li> </ul>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제활동 회복 및 미상환 대출 구제를 위한 은행 설립</li> <li>▷ 기업활동 지원(장기자금 조달,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li> <li>▷ 소작농, 기업인 및 투자자 대상 금융 지원</li> <li>▷ 정책 금리 안정화로 금융시장 안정성 보장</li> </ul>
	대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이주민 대상 저축 및 투자 대책 마련</li> <li>▷ SDGs 관련 개발 프로젝트 지원 목적의 개발 채권 발행</li> <li>▷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FDI 유치</li> <li>▷ 기존 무역협정 검토 및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 다각화</li> <li>▷ 관광 및 IT 산업 강화</li> </ul>
	IMF 프로그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이행 조건 재협상</li> <li>▷ 효율적인 세무 행정 및 정부지출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li> <li>▷ 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적정 수준 이자율 유지방안 마련</li> <li>▷ 대외채무 감사를 통해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자에게 법적 조치</li> <li>▷ 국가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공공 재정관리 강화</li> </ul>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li> <li>▷ 토지 수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률 마련</li> <li>▷ 사업 등록, 라이선스 발급, 인증, 토지 사용, 인프라 서비스 이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단일 창구 설치</li> <li>▷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제고방안 마련</li> <li>▷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조 조정</li> <li>▷ 국가 전략 부문에 대해 PPP 투자 홍보</li> </ul>	
무역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서비스 수출 다각화 촉진 및 관련 인프라 개선</li> <li>▷ 인도, 중국,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li> <li>▷ 해상 서비스(안보, 연료, 식량)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li> <li>▷ 항구 시설 개발, 선박 건조·수리 기술 및 인프라 개선</li> <li>▷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및 수출 촉진</li> </ul>	

분야	세부 분야	내용
산업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생산품인 차(茶), 코코넛, 고무, 쌀·벼 생산량 증대</li> <li>▶ 연간 에이커당 300만 루피의 수입 창출</li> </ul>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의 생산 및 투자 촉진</li> </ul>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업 생산 도모</li> </ul>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 생활 수준 개선</li> <li>▶ 연간 50억 달러의 수출 역량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국제적 파트너십 확대 도모</li> </ul>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및 문화 자원 보전에 인적자원 및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li> </ul>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구 인프라 및 서비스와 직업 훈련 확대</li> <li>▶ 세계적인 해운 중심지로 도약</li> </ul>
	광물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광물자원(석회, 방해석, 백운석, 무기물 모래, 석영, 흑연, 인회석, 실리카 등)의 지속 가능한 채굴과 부가가치 상품 개발</li> </ul>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li> <li>▶ 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그린수소 등)로의 점진적인 전환</li> </ul>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li> <li>▶ 친환경 시스템으로 점진적 전환</li> </ul>

자료: Jathika Jana Balawegaya, "A Thriving Nation - A Beautiful Life," <https://www.npp.lk/en/policies/nppppolicystatement>(검색일: 2024. 9.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3. 전망

■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11월 14일로 조기 총선 실시 결정을 발표했으며, IMF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9월 24일 신임 대통령은 라자팍사 가문이 이끌던 스리랑카 인민자유동맹(SLPFA: Sri Lanka People's Freedom Alliance)이 과반 의석(145/225석)을 차지하던 16대 의회를 해산했으며, 오는 11월 14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소속 정당연합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총선 결과에 따라 신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은 내년 초에나 착수될 것으로 보임.<sup>37)</sup>
- 이어 지난 10월 2일 IMF 프로그램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행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10월 말 네 번째 분할 지급분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있음.
  - 기존에 합의된 화폐 발행 금지 조건이나 세입 및 지출 목표 등 핵심 조건들에 대한 재협상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sup>38)</sup> 네 번째 분할금 확보에 필요한 재정 개혁에 대한 요구는 신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7) Reuters(2024. 9. 24.), "Dissanayake's push for Sri Lanka economic change leaves IMF deal, debt rework in limbo,"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dissanayakes-push-sri-lanka-economic-change-leaves-imf-deal-debt-rework-limbo-2024-09-24/>(검색일: 2024. 10. 4.).

38) France 24(2024. 10. 3.), "Sri Lanka's new president seek changes to IMF deal,"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1003-sri-lanka-s-new-president-see-changes-to-imf-deal>(검색일: 2024. 10. 7.).

■ 디사나야케 신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IMF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디사나야케 신정부는 스리랑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회복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대선을 앞두고 2024년 4~6월에 진행된 SLOTS(Sri Lanka Opinion Tracker Survey) 설문조사 결과, △경제위기 극복(응답자의 59%), △인플레이션 완화(55%), △일자리 확대(38%), △세금 완화(21%)가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힘.<sup>39)</sup>
-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채무재조정 합의 사항 관련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NPP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죽음의 함정(death trap)’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판해 왔으며,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행 조건 재협상의 의도라며 표현을 완화한 바 있음.<sup>40)</sup>
  -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스리랑카의 2029년 만기 달러 채권이 3.1% 급락하며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sup>41)</sup>
-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만큼 총선에서 NPP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경제 회복세 둔화와 대선 결과가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2024년 스리랑카 경제 전망치를 1.2%p 하향 조정해 4.5%로 내다봄.<sup>42)</sup>

■ 더불어 역사적으로 친중 성향이 짙은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국의 대(對)남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음.

- 스리랑카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경로의 교차점이자 경제,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인도와 중국 간 경쟁의 요충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NPP는 중국과의 역사적, 이념적인 친밀성을 공유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반(反)인도적 태도를 고수해온바, 중국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좌파 민족주의 성향 NPP는 타밀 소수민족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인도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꾸준히 견제해왔음.
  - 최근 디사나야케 정부가 ‘인도 아다니그린에너지(Adani Green Energy Ltd)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계약 과정에서 전 정권과의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이후 재검토할 것을 결정해 인도와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함.<sup>43)</sup>

39) Institute for Health Policy(2024. 8. 22.), “Sri Lankans believe the economy and inflation are the most pressing national issues, followed by unemployment,” <https://www.ihp.lk/press-releases/sri-lankans-believe-economy-and-inflation-are-most-pressing-national-issues-followed-unemployment>, (검색일: 2024. 10. 6.).

40) The Hindu(2024. 10. 3.), “IMF’s bailout package: Sri Lanka’s new government says ‘committed’: hopes of renegotiating conditions,”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imfs-bailout-package-sri-lankas-new-government-says-committed-hopes-of-renegotiating-conditions/article68712509.ece>(검색일: 2024. 10. 4.).

41) Bloomberg(2024. 9. 23.), “Sri Lankan Bonds Slide as Election Result Puts IMF Loan at Risk,”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9-23/sri-lanka-bonds-tumble-as-leftist-candidate-wins-presidency?sref=QbgqEltZ>(검색일: 2024. 10. 7.).

42) Country Economic Forecast - Sri Lanka(2024. 9. 30.),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4. 10. 4.).

43) 디사나야케는 선거 운동 중 동 프로젝트가 “스리랑카의 에너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음. Money Control(2024. 10. 8.), “Sri Lanka’s new government pledges review of Adani wind project,”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markets/sri-lankas-new-government-pledges-review-of-adani-wind-project-12838108.html>(검색일: 2024. 10. 8.).

- 한편 시진핑 주석은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축전을 통해 신정부와의 일대일로 협력 촉진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으로써 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함.
- 이에 미국은 스리랑카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아시아 주요국의 연이은 정권 교체로 역내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인도 또한 스리랑카 신정부와 중국의 경제적 밀착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sup>44)</sup>

■ 이에 디사나야케 정부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주요국 간 균형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디사나야케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철수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재협상이 부진할 경우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패 퇴치를 위해서도 국제기구와 협력할 의향을 밝힘.<sup>45)</sup>
- 외교 관계에서도 경제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인도는 스리랑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약 4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 스리랑카와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해 왔으며,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인도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sup>46)</sup>
  - 신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축전에 즉각 응답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으며, 10월 4일 콜롬보를 방문한 인도 외무장관 자이산카르(S Jaishankar)와 만나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한국은 스리랑카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양국 관계 강화 및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신정부의 정책적 협력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리랑카는 2011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 미국, 호주에 이어 스리랑카의 네 번째 원조 지원국으로 양국은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음.
  - 디사나야케 신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직업 훈련, △공공 보건 시스템, △주택공급, △농어업 현대화,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도로·철도, △IT 센터 등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KIEP**

44) 몰디브는 2023년 11월 친중국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둔 인도군을 철수시키고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며 인도와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네팔은 2024년 7월, 과거 총리 재임 시절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했던 친중국 성향의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친인도 성향의 하시나 총리가 반정부 시위로 축출되고 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됨. 자세한 내용은 노윤재 외(2024),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24-32, KIEP 참고

45) The Diplomat(2024. 9. 23.), "President Anura Kumara Dissanayake: A New Era of Reform Amid Economic Turmoil in Sri Lanka," <https://thediplomat.com/2024/09/president-anura-kumara-dissanayake-a-new-era-of-reform-amid-economic-turmoil-in-sri-lanka/>(검색일: 2024. 10. 8.).

46) The New Indian Express(2024. 9. 23.), "Xi congratulates new Lankan President Dissanayake, pledges more BRI investment," <https://www.newindianexpress.com/world/2024/Sep/23/xi-congratulates-new-lankan-president-dissanayake-pledges-more-bri-investment>(검색일: 2024. 10. 8.).

## 부록

부표 1. 디사나야케의 분야별 정책 공약 주요 내용

분야	세부 분야	내용
<p>[교육 및 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의 6%까지 교육 예산 확대</li> <li>▷ 의료 예산에 GDP의 3% 배정</li> </ul>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가 있는 식사 보장</li> <li>▷ 모든 아동에 대해 3km 이내 접근 가능한 학교 설립</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훈련 및 기술 교육 제공</li> <li>▷ 1만 명 청년 기업인에게 개발은행 자금 지원</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부패 근절</li> <li>▷ 60세 이상 노년층 대상 건강검진 제공</li> <li>▷ 인구 5천 명당 1개의 건강센터 설치</li> <li>▷ 국가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li> </ul>
<p>[사회보장 및 노동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장애인, 여성 가구 지원</li> <li>▷ 저소득 가구 대상 보조금 확대</li> <li>▷ 노동자 권리 보호, 공정한 임금 및 평등한 기회 보장</li> </ul>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가구 장애인 대상 월 보조금 확대</li> <li>▷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제공</li> <li>▷ 권리 보장 법률 도입</li> <li>▷ 장애인 대상 고용 할당제 시행</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형태의 성별 차별 폐지</li> <li>▷ 농촌 여성 대상 소액 금융 대출 부담 완화</li> </ul>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 장려</li> <li>▷ 주택 계획, 식수 및 위생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제도 도입</li> <li>▷ 임산부 대상 식료품 지원</li> <li>▷ 노인 및 아동 돌봄 센터 설치</li> </ul>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개편</li> <li>▷ 정보기술,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li> <li>▷ 수출 다각화를 통해 5년 내 450억 달러 목표 달성</li> </ul>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IT 인력 20만 명까지 확대</li> <li>▷ IT 센터 4개 설립</li> <li>▷ 2030년까지 정보기술 분야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분야 일자리 2만 개 확대</li> <li>▷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 1만 2천 개 확대</li> <li>▷ 국제청, 세관, 외교 서비스 및 관광 분야 일자리 3천 개 확대</li> </ul>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li> <li>▷ 필수품,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li>▷ 채권 및 신규 투자 기회 제공으로 송금 유입 촉진</li> <li>▷ 중소기업 지원 은행 설립</li> </ul>
<p>[식량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li> <li>▷ 제품 품질 제고를 통한 건강 안전 확보</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자급 생산 촉진</li> <li>▷ 농민 대상 개발은행 설립 및 대출 지원</li> <li>▷ 농기계 임대 서비스센터 설치</li> <li>▷ 1천 개 농업 수출마을 설립</li> <li>▷ 관개 시스템 개선</li> </ul>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 보조금, 기술 지원 제공</li> <li>▷ 현대 기술 도입, 양식 어업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li> </ul>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li> <li>▷ 상업적 운영 전환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li> <li>▷ 여성·청년 기업인 운영 축산 농장 2만 개 설치</li> </ul>
<p>[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확대</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전기 공급 보장, 에너지 가격 안정화</li> <li>▷ 재생에너지 2,500MW 확대</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서비스, 철도 인프라 확대</li> <li>▷ 농촌 도로 개보수</li> <li>▷ 여성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 보장</li> </ul>

분야	세부 분야	내용
[거버넌스] ▶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국민 신뢰 회복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부정부패	▶ 공공자산 회수(Public Asset Recovery) 기관 설립을 통해 부정 취득한 자산 회수 ▶ 뇌물 수수 및 부패 사건 처리를 위한 상설 고등법원 설립 ▶ 지역별 부패 방지 조사 사무소 설치
	외교	▶ 외교 공관 네트워크 개혁 ▶ 외교 공관에 대한 성과지표 도입을 통해 무역, 관광, 고용 활성화
	일반	▶ 차별방지위원회 설립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금 폐지 ▶ 정부 서비스 언어 접근성 보장

자료: Jathika Jana Balawegaya, "A Thriving Nation - A Beautiful Life," <https://drive.google.com/file/d/1RAeFQ2W8E8wk3kJYh10qSqNihxnAkQmj/view>(검색일: 2024. 9.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